

# 冤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연구

- 苦 의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朱賢哲\*

## 目次

I. 서론	3. 冤과 苦의 원인 비교
II. 冤과 苦의 개념	IV. 冤과 苦의 극복
1. 冤의 개념	1. 冤의 극복
(1) 怨과 恨의 개념	(1) 公事에 의한 冤 극복
(2) 冤과 怨의 개념	1) 公事の 독창성
2. 苦의 개념	2) 解冤公事
3. 冤과 苦의 개념 비교	① 天·地界
III. 冤과 苦의 원인	② 人間界
1. 冤의 원인	(2) 人間次元의 冤 극복
(1) 天·地界	2. 苦의 극복
(2) 人間事	3. 冤과 苦의 극복방법 비교
2. 苦의 원인	V. 결론

## I. 서론

이 글은 대순사상(大巡思想)과 불교사상(佛敎思想)을 비교고찰(比較考察)하여 두 사상사이의 공통점(共通點)과 차이점(差異點)을 밝히려는데 그 목적(目的)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 및 범위로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와 불교

---

\* 문학박사

(佛敎)의 핵심사상(核心思想)이라 할 수 있는 해원상생(解冤相生)과 사성제(四聖諦)로 한정했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이란 선천세계(先天世界)가 포원(抱冤)과 상극(相克)으로 지배되어 있는데 후천세계(後天)에는 맞는 원한(怨恨)이 모두 풀려 상생(相生)의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불교사상(佛敎思想)에서 말하는 사성제(四聖諦)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苦)의 원인(原因)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탈(解脫)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4가지 진리를 일컫는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가 원(冤)을 풀고 서로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불교(佛敎)는 인생고(人生苦)를 없애고 해탈(解脫)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冤)과 고(苦)의 개념사이에는 서로 공통(共通)되는 점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다. 본 논자(論者)는 이와 관련하여 제 II장에서 원(冤)과 고(苦)의 개념, 그리고 두 용어(用語)의 적용범위를 다룰 것이고, 제 III장에서는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말하는 원(冤)의 원인인 상극적(相克的) 요소에 대해서 논(論)한 후, 불교사상에서 주장하는 고(苦)의 원인인 갈애(渴愛)와 업(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 IV장에서는 원과 고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는 먼저 상제께서 처결(處決)하신 공사(公事)와 그 독창성(獨創性)에 대해서 밝힌 후, 인간차원(人間次元)에서의 극복방법으로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훈회(訓誨)와 불교(佛敎)의 팔정도(八正道)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 II. 冤과 苦의 개념

### 1. 冤의 개념

원(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유사한 개념인 원(怨)과 한(恨)의 개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冤)·원(怨)·한(恨)·척(慼) 등의 유사개념(類似概念)들에 대한 연구가 문학(文學), 민속(民俗), 최근에 들어서는 심리학(心理學) 분야(分野)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만 아직도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한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견해에 입각해서 이들 개념 사이의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사이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원(怨)과 한(恨)의 비교를 통하여 두 개념간의 상관관계와 차이점을 밝힌 후, 『전경』을 중심으로 원(冤)과 원(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 (1) 怨과 恨의 개념

먼저 원(怨)과 한(恨)의 특성에 대해서 이어령은 “원은 곧 주로 타자에 대한 것 또는 자기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며, 한은 자기자신에게 향한 마음이며, 자기내부에 쌓여가는 정감이다”<sup>1)</sup>고 하였다. 고은은 “恨이 착한 마음씨와 그에 상응하는 복이 따라오지 않을 때에 생기는 수동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려는 의지가 타인의 의지와 마찰을 빚을 때에, 그 타인의 의지에서 나의 의지가 꺾이게 될 때에 怨이 생긴다”<sup>2)</sup>, “怨은 굳이 말한다면 대상이 있고 恨은 구체적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단념한 무형문화의 감정이다”<sup>3)</sup>라고 하였다. 또 문순태는 “한은 자화에서, 원은 가학으로부터 발생한다”<sup>4)</sup>, 정대현은 “원한은 지향성의 개념인데 반하여 한은 그렇지 않다”<sup>5)</sup>고 하였는데, 이는 “원한의 경우 그 불의의 대상은 알려져 있지만 한의 경우 대상이 없다”<sup>6)</sup>는 이유에서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怨)은 대상지향적(對象指向的) 감정으로서 그 대상의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노, 증오, 적개심, 보복 등의 감정이 유발되지만, 한(恨)은 비대상지향적(非對象指向的) 감정으로서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해진 자책이 섞인 좌절의 심리상태로, 응어리지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恨’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한(恨)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 恨은 마음을 뜻하는 心(마음 심)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뜻인 良(머무

1) 李御寧,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중앙일보 1982. 9. 23일자  
 2) 고은, 恨의 극복을 위하여, 『恨의 이야기』, 청노루, 1988, 44쪽  
 3) 앞의 책, 같은 글, 58쪽  
 4) 문순태, 恨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150쪽  
 5) 정대현, 한의 개념적 구조, 앞의 책, 246쪽  
 6) 앞의 책, 같은 글, 253쪽

를 간)이 결합되어 ‘마음속의 상처를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전자(前者)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감정이 수반되어 적극적(積極的)이고 가혹적(加虐的)인데 반해, 후자(後者)는 억울함과 분노는 있으나 무기력감, 무능력, 비애, 후회, 열등감 등으로 인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단념하거나 체념하는 소극적(消極的)이고 자학적(自虐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恨)은 누리는 자의 말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자의 말이며, 극복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극복하지 못하는 자의 말이다.<sup>7)</sup> 다시 말해서 한(恨)은 강한자의 소유가 아니라 약한자의 소유이다. 강자가 더 강해지려고 하다가 생긴 한(恨)은 한(恨)이 아니라 욕심(慾心)이요 탐욕(貪慾)인 것이다.

그런데 원(怨)과 한(恨)이 영원히 그 속성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恨)이 원(怨)으로 또는 원(怨)이 한(恨)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불만과 불평을 밖으로 표출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인간의 내부에 머물러 있다면 그대로 한(恨)으로 남게 되지만, 어떠한 동기 부여(사회적 의식화나 감정의 공감대 형성)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자의 감정이라는 소극성(消極性)을 벗어나 누리지 못하는 자의 누리고 싶어하는 감정이 강해져 적극성(積極性)을 띠는 때 원(怨)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원(怨)이 한(恨)으로 변할 때는 보복감정(報復感情)이 약해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한(恨)이 원(怨)으로 바뀔 때는 억눌려 온 시간이나 정신적 고통만큼 보다 강력한 보복지향적(報復指向的) 원(怨)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개인적(個人的)으로는 인간상호간의 시기, 질투, 반목이 조장되며, 집단적(集團的)으로는 협동정신이 해체되어 당파, 학파 등의 파벌의식이 생기기도 한다. 또 국가나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2) 冤과 怨의 개념

지금까지 원(怨)과 한(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다음은 원(冤)과 원(怨)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개념이 일반

7) 최하림, 恨에 대한 성찰, 앞의 책, 14쪽

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을 좀 더 깊게 관찰해 보면, 그 뉘앙스와 사용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두 개념사이의 뉘앙스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冤[①원통할 원: 억울함. 억울하게 죄를 받음 ②원죄 원: 억울한 죄 ③원한 원, 원수 원], 怨[①원망할 원: ㉠불평을 품고 미워함 ㉡무정(無情)함을 슬퍼함 ②원한 원 ③원수 원]<sup>8)</sup>에서 알 수 있듯이, 冤과 怨이 공통적으로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冤의 의미에는 ‘원통할 원’ 즉, ‘억울하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이를테면 冤과 결합된 冤罪, 冤訴, 冤屈, 冤淚, 冤憤, 冤死, 冤獄, 冤痛, 結冤, 怨과 결합된 怨罪, 怨訴, 怨望, 怨謗, 怨憤, 怨聲, 怨尤, 怨詛, 仇怨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렇게 冤은 怨보다 ‘억울하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그 뉘앙스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 의미상으로 보아 한(恨)보다는 원(怨)이, 그리고 원(怨)보다는 원(冤)이 뉘앙스가 더 강하다.

이러한 입장은 박용철의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설문해자(設文解字)』에 나타난 원(冤)의 자형(字形)의 의미를 중심으로 원(冤)·원(怨)·한(恨)·척(慙)의 용어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분화시켜 분석하고 있다.

- ① 토끼가 움직이려는데 틀(宀)에 갇혀서 답답함; 뜻을 이루려는데 외부의 제약에 의해서 이루지 못하므로써 생기는 자기자신에 대한 원—능동적 원,
- ② 토끼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틀이 조여옴; 오해나 누명을 쓰는데서 오는 원—수동적 원,
- ③ 토끼가 자신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틀을 원망함; 뜻을 이루려는데 방해되는 대상을 미워하는 원—공격적 원.<sup>9)</sup>

그는 이렇게 원(冤)의 의미를 외부의 압력에 극복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자기발생적인 능동적(能動的) 원(冤), 자신의 진실에 관계없이

8)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3, 149, 462-3쪽

9) 박용철, 典經에 나타난 冤의 本質과 構造, 『大巡思想論叢』 제 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390-391쪽

상대방의 오해나 누명 또는 욕심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수동적(受動的) 원(冤), 자기발생적이거나 외부적 요인에서 오는 원(冤)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그에 따르는 복수심을 갖는 공격적인 원(冤)으로 구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冤’자의 분석을 통해서 원(冤)이 마음속에 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 한(恨),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 원(怨) 그리고 남을 못되게 하여 원한을 맺게 하는 척(慝) 등, 이 모든 용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중심으로 다른 시각에서 원(冤)의 의미를 조명해 보면, 『전경』에는 원(冤, 怨)과 원한(冤恨, 怨恨)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한자(漢字)로 표현할 때 ‘원(冤)’인지 ‘원(怨)’인지, ‘원한(冤恨)’인지 ‘원한(怨恨)’인지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원(冤)과 원(怨)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전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경』에 원이 ‘冤’으로 표현된 경우는 두 번 있다.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sup>10)</sup>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sup>11)</sup>

첫번째 예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원(冤)의 역사의 첫 장’과 ‘단주의 원’은 문맥상 동격이므로 ‘단주의 원’에서 원은 한자(漢字)로 ‘怨’이 아닌 ‘冤’이고, ‘단주의冤’이 ‘원의 뿌리’이므로 이때의 원도 ‘冤’이다. 또 이 ‘冤의 뿌리’에서 ‘원의 종자’가 나오게 됨으로 ‘원의 종자’에서의 원도 한자(漢字)로는 ‘冤’이 된다. 이 원(冤)의 종자가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10) 『전경』, 공사 3장 4절 (이하 인용문에 굵게 표시된 부분은 논자의 필요에 의한 것임)

11) 『전경』, 권지 2장 37절

파멸하게 되었느니라’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파멸하게 된 것은 인간의 원만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 찬 원이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한이란 인간의 감정상태를 의미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우주만물에 확대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冤)이란 인간중심의 감정상태를 의미하는 원(怨)과는 달리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두루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천년 쌓인 원’도 인간 자체에게만 쌓인 원이 아니라 수천년 동안 삼계에 걸쳐 쌓여 온 모든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冤’(怨이 아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입증해 주는 일례가 두번째 예문의 내용이다.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에서 진목은 인간(人間)이 아닌 신명(神明)으로서 천계(天界)에 속하기 때문에 원을 한자로 ‘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서 품은 원은 ‘怨’ 또는 ‘冤’으로 표현이 가능하나 사후(死後)의 세계에서 품은 원은 ‘怨’이 아닌 ‘冤’으로 표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원(怨)과 한(恨)이 결합하여 ‘원한(怨恨)’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때 그 범위는 확장된다.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sup>12)</sup>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나. 그러므로 중천신은(...)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sup>13)</sup>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sup>14)</sup>

원한(怨恨)이라는 용어는 ‘冤’처럼 위의 예(例)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人間), 신명(神明), 삼계(三界)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冤=怨恨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 보면,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고”<sup>15)</sup>와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sup>16)</sup>에서 전자(前者)의 ‘원’과 후

12) 『전경』, 교법 1장 31절

13) 『전경』, 공사 1장 29절

14) 『전경』, 공사 1장 4절

15) 『전경』, 권지 1장 11절

16) 『전경』, 예시 9절

자(後者)의 ‘원한’은 내용상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자의 원은 당연히 ‘冤’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원(冤)은 원한(怨恨)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용어인 원한(冤恨)은 원한(怨恨)보다 누앙스가 강할 뿐, 그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원(怨)은 인간중심적인 감정상태로서 인간의 원한(怨恨)에, 원(冤)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두루 쌓여 있는 모든 원한에 사용된 용어(用語)이다. 이것은 대순사상의 대표적인 용어 중의 하나인 ‘해원(解冤)’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때 원한을 풀어야 하는 대상은 인간 뿐만 아니라 삼계(三界) 전체이기 때문에 ‘冤’(怨이 아닌)을 사용한 것이다. 또 척(慼)은 주체(主體)에 대한 객체(客體)의 원한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을 말한다. 이 척(慼)이란 용어도 인간 뿐만 아니라 삼계(三界) 전체에 적용되지만,<sup>17)</sup> 주체에 대한 객체의 원한과 객체에 대한 주체의 원한을 모두 의미하는 원(冤)의 범주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원(冤)은 원(怨), 한(恨), 척(慼)의 함축적(含蓄的)이고 포괄적(包括的)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2. 고통의 개념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四聖諦)란 인생고(人生苦)를 초극해서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석가가 자신이 깨달은 연기설(緣起說)이 일반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설법하기 쉬운 형태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고성제(苦聖諦), 고집성제(苦集聖諦), 고멸성제(苦滅聖諦),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이것을 줄여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제(滅諦), 도제(道諦)라고도 한다. 생존의 본질은 고(苦)이고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渴愛)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 곧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 항상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집제(集諦)의 의미이다. 다음으로 멸제(滅諦)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이니 곧 열반(涅槃)의 세계이다. 다시

17) 『전경』, 공사 2장 4절 참조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말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말해서번뇌(煩惱)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갈애(渴愛)와 무명(無明)인데, 이와 같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면 이 열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제(道諦)이다. 석가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의 진리로 팔정도(八正道)를 행해야 한다고 설(說)했다. 이 팔정도에 의해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고락중도(苦樂中道) 즉, 고(苦)와 낙(樂)의 중도(中道)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도란 괴로움과 즐거움에 다같이 집착하지 않고 전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남을 분간하지 않는 공평한 정신에서 출발한다.

석가는 먼저 고(苦)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괴로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먼 길을 헤매어 생사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임을 알 것이니, 괴로움이란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근심과 슬픔과 번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오온(五蘊)으로 된 이 몸이 모든 괴로움이다.”<sup>18)</sup> 오온이란 모든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적(物質的)·정신적(精神的) 작용으로서 물질(色), 느낌(受), 생각(想), 의지작용(行), 의식(識)의 다섯 요소를 말한다.

### 3. 冤과 恨의 개념 비교

앞서 살펴본 대로 원(怨)은 보복감정(報復感情)이 수반된 적극적(積極的)이고 가혹적(加虐的)인 반면에, 한(恨)은 체념상태(諦念狀態)에서 오는 소극적(消極的)이고 자학적(自虐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원(怨)은 인간중심적인 감정상태로서 그 사용범위가 인간에게만 국한(局限)되지만, 원(冤)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적용된다. 원(冤)과 유사한 용어로서 원한(怨恨)과 원한(冤恨)이 있는데, 이 양자(兩者)사이에는 뒤앙스에서 후자(後者)가 강할 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

18) 『불교성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성전 편찬회, 1978, 77-78쪽

사상(大巡思想)의 원(冤)과 불교사상(佛敎思想)의 고(苦)는 그 사용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것은 원(冤)이 삼계(三界)에 모두 사용되는 개념인데 반하여 고(苦)는 인간중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고(苦)는 원(怨)이나 한(恨)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고통은 원(怨)이나 한(恨)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원(怨)이나 한(恨)은 곧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가가 고(苦)라고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를테면 청춘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백발이 성성하고 기력이 쇠약해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 것, 건강했던 몸은 온몸이 균형을 잃고 기혈이 순조롭지 못해 갖가지의 병이 들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정들었던 주위 사람들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평온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과 번민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부모, 처자, 친구라도 언젠가는 서로 헤어져야 하는 것, 서로 증오(憎惡)하며 원한(怨恨)을 품거나 보복하려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며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苦)라 하였는데 이 고(苦)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怨) 또는 한(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大巡思想)과 불교사상(佛敎思想)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인간의 탄생에 관한 것이다. 불교사상에서 ‘나는 것을 고(苦)’라 함은 업(業)의 결과로 오온(五蘊)이 화합하여 목숨을 이룬 후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려면 온갖 고통을 겪게 되므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苦痛)이지만, 이와는 달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탄생 그 자체만은 크나 큰 축복(祝福)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 내리오, 하셨도다.”<sup>19)</sup>

이렇게 불교사상(佛敎思想)에서 인간은 전생(前生)에 해탈하여 영생(永生)을 얻지 못하고 나지 않으려고 해도 업(業)을 따라 나게 되는 불행한 존재인데 반해,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인간은 업(業)이 아닌 선령신(先靈神)들의 공덕(功德)에 따라 태어나게 된다. 더욱이 선령신들이 육십년 동안 공을 들여도 이 세상에 태어날까 말까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하고 축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인 것이다. 결국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고통(苦痛)도 아니요 결코 원(怨)도 아닌 축복(祝福)일 따름이다.

### Ⅲ. 冤과 苦의 원인

#### 1. 冤의 원인

불교(佛敎)가 ‘인간고(人間苦)’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삼계(三界)<sup>20)</sup>에 쌓인 ‘원(冤)’을 풀어 상극(相克)을 상생(相生)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순사상은 불교 뿐만 아니라 기성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원인이 인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의 상극(相克)에 의한 원한에 있다고 보고 있다.<sup>21)</sup> 또 대순사상에서는 요(堯)임금의 아들 단주(丹朱)가 품은 원이 인류 최초의 원(冤)이라고 밝힘으로써 원의 역사성(歷史性)이나 그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sup>22)</sup> 그래서 이 장(章)에서는 인간

19) 『전경』, 교법 2장 36절

20) 대순사상과 불교사상에서 말하는 삼계(三界)의 개념은 전적으로 다르다. 전자(前者)에서의 삼계(三界)는 천계(天界)·지계(地界)·인계(人界)를 일컫는데, 후자(後者)의 경우 삼계(三界)는 삼유(三有)라고도 하는데 탐욕의 정도에 따라 욕계(慾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로 분류된다.

21) 『전경』, 공사 1장 3절 참조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22) 『전경』, 공사 3장 4절 참조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의 긴 역사만큼이나 쌓이고 맺혀온 수 많은 원(冤)의 원인과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冤)의 원인을 천·지계(天·地界)와 인간사(人間事)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하겠다.

### (1) 天·地界

대순사상에서 원(冤)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원(冤)의 원인은 상극(相克)에 있으며, 상극이 표출되는 원인은 음양(陰陽)의 부조화에 있다. 음양이란 우주만물 중 서로 상대적인 위치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암컷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다.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숨은 것은 음이고 나타난 것은 양이다.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sup>23)</sup> 이렇게 서로 음양관계(陰陽關係)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면 원(冤)이 발생된다.

하늘도 묵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밝은 하늘이 있고, 땅도 기름진 땅이 있는가 하면 거칠은 땅이 있고, 날도 잠마가 있는가 하면 가문 날도 있고, 바람도 순풍(順風)이 있는가 하면 역풍(逆風)이 있고, 때도 추운 때가 있는가 하면 더운 때가 있다.<sup>24)</sup> 또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음으로써 하늘과 땅사이에 시비(是非)가 일어나 원(冤)이 발생하게 되었다.<sup>25)</sup>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생물로 분류되는 것까지도 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순사상(大巡

---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과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과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23)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참조

24) 『전경』, 교법 3장 6절 참조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25) 『전경』, 교법 1장 62절 참조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思想)의 입장이다.

한편 신(神; 神明, 神將, 鬼神 등)에게도 원(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천신(中天神)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라서 황천신(黃泉神)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을 품고 있었고<sup>26)</sup>, 서양인 이마두(利馬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유교의 폐습으로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므로써 신명들 상호간에 원을 풀어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세상을 열지 못하여 원이 쌓이게 되었다.<sup>27)</sup>

또한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서 인간세상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그를 시기한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케 하였다.<sup>28)</sup> 이 이외에도 인간세상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원을 품고 있으며, 인간세상에서 인간들끼리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천상계(天上界)에 있는 선령신(先靈神)들사이에 불화를 일으켜 서로 원을 맺히게도 한다.

## (2) 人間事

상제께서 해원공사(解冤公事)로써 원(冤)의 뿌리를 제거하시어 지금까지 쌓이고 맺힌 원을 풀어주셨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다시 원을 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의 세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심리

26) 『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27)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서양인 이마두(利馬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며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28) 『전경』, 권지 2장 37절 참조

적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 각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지상선경의 세계도 보다 빨리 실현될 것이다.

원(冤)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을 때 거기에는 억울함과 분노, 절망과 원망이 있을 뿐이다. 심리학자 최상진은 자신의 논문에서 한(恨)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첫째,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을 때,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심각하게 결핍되었거나 일반타인에 비교해서 필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결핍되었을 때, 셋째, 자기자신의 지울 수 없는 실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29)</sup> 그의 연구는 한(恨)의 초기 심리상태가 원(怨)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恨)은 한(恨) 뿐만 아니라 원(怨)을 포괄하는 개념인 원(冤)이라 할 수 있다. 본 논자(論者)는 이를 토대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원(冤)의 발생원인에 대한 심리적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첫째, 개인적 원인(個人的 原因); 자신의 실수나 무능력에서 발생하는 원(冤)을 말한다. 이 경우는 사회적인 제도나 여타의 제약과는 무관하며, 후회(後悔)나 반성(反省), 단념(斷念)이나 체념(諦念) 등의 감정이 수반된 소극적(消極的)·자화적(自虐的)·비대상지향적(非對象指向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속성상 한(恨)에 속한다. 이를테면 원했던 일이 어떠한 억압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실수나 능력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살아생전 불효하던 자식이 부모의 사후(死後)에 이를 후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원인(社會的 原因); 사회제도의 제약이나 사회적 현실로 말미암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 생기는 원(冤)이다. 이 경우는 불평등, 억압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분노(忿怒)나 증오(憎惡), 적개심(敵愾心)이나 보복(報復) 등의 감정이 수반된 적극적(積極的)·가화적(加虐的)·대상지향적(對象指向的)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怨)의 속성

29) 최상진, 恨의 심리학적 분석, 『中央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 第 34輯, 1991, 267-8쪽

——,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自己(Self)—, 『中央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 第 35輯, 1992, 214-215쪽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반상(班常)의 구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존여비(男尊女卑), 지배계급(支配階級)의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에 대한 억압(抑壓), 인종차별(人種差別) 등을 들 수 있다.

세째, 복합적 원인(複合的 原因, 개인적 또는 사회적 원인); 원(冤) 발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로써 막연히 타자(他者)와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가 현격히 차이가 날 때, 그 발생원인이 개인적(個人的)인지 사회적(社會的)인지를 뚜렷이 인식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는 가난하다든가, 자식이 잘못되었다든가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원(冤) 발생원인이 개인적 원인에 가까울수록 상대방에 대한 보복심리(報復心理)가 악하고, 사회적 원인에 가까울수록 그 심리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썸의 원인

사성제(四聖諦) 중 두번째 진리인 집(集)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기쁨과 탐욕을 좇아 모든 곳에서 환희를 구하려는 무지(無知)와 맹목의 그릇된 욕구인 갈애(渴愛)를 일컫는다. 갈애란 목이 마를 때 물을 사랑하듯 사람들이 오욕(五慾: 재욕, 색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에 탐착함을 말하며, 무지(無知 또는 無明)란 ‘일체의 존재는 다 무상하기 때문에 나(自我, Atman)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이다.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번뇌(煩惱)가 생겨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며 그로인해 업(業)을 짓게 된다. 무명과 욕망이 업을 짓게 함으로 해서 그 업이 쌓여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은 윤회(輪廻)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충족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설사 욕망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싹튼다. 또한 전생(前生)의 업의 결과가 현존재를 발생케 했으며, 현생(現生)의 업이 미래의 존재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업은 또 다른 업을 낳는 법이다. 결국 불교에서는 전생(前生)과 현생(現生)에서 지은 업, 일체를 단절하므로써만이 윤회(輪廻)의 세계를 벗어나 해탈(解脫)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業)사상은 ‘선행(善行)은 선과(善果)를 받고 악행(惡行)은 악과(惡果)를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과응보적(因果應報的) 도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업(業)은 인간이 해탈하는데 장애가 되어 윤회를 거듭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업(業)을 근거로 성립된 불교의 윤회사상(輪廻思想)은 인도정통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인도의 정통사상이 우주의 유일한 실체인 자아(我, Atman)를 인정하는 반면 불교사상은 이것을 무지(無知)와 윤회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인도의 정통사상인 우파니샤드 사상속에 나오는 오화이도(五火二道) 윤회설에 의하면, 오화교(五火敎)라는 것은 인간이 사후에 화장이 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달로 들어갔다가 비가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농작물이 되고, 인간이 이를 먹으면 정자가 되어 모태에 깃들었다가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의 다섯 단계를 제화(祭火)에 의탁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 이도(二道)란 신의 길(神路)과 조상의 길(祖道)을 말하는 것이며, 전자(前者)는 죽은 사람의 혼이 브라만의 세계로 들어가 천계(天界)에 머무는 것을 말함이고, 후자(後者)는 오화교의 단계를 통해 현세에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다.<sup>30)</sup> 불교는 이 사상을 수용하여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업에 따라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에 다시 태어난다는 육도윤회(六道輪廻)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 3. 冤과 苦의 원인 비교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원(冤)의 원인을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의 상극(相克)에 두고 있다. 반면에 불교사상(佛敎思想)에서는 고(苦)의 원인이 인간 자신의 전생업(前生業)이나 현생업(現生業)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전생(前生)의 고(苦)는 전전생(前前生)과 전생(前生)의 업(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인간의 고(苦)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된 전생업(前生業)의 자취를 추적해야 하는데, 그 자취를 아무리 추적해 보아도 인류 최초의 고(苦)와 업(業)의 원인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요임금

30) 이소노가미젠이찌로(박희준 옮김), 윤회와 전생, 고려원, 1989, 141쪽



의 아들 단주(丹朱)가 품은 원한을 인류 최초의 원(冤)으로 간주함으로써 원(冤)의 시발점(始發點)을 명백히하고 있다.

한편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는 불교(佛敎)의 업(業)사상과 윤회사상(輪廻思想)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업(業)의 원인이 되는 탐욕(貪慾)은 ‘탐애(貪愛)’ 또는 ‘탐착(貪着)’이라고도 하며,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사람, 물건 등에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도 업의 원인으로서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sup>31)</sup>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지 못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몸에 병이 생기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러한 탐욕은 업(業)으로 남게 되어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도 한다.<sup>32)</sup>

31)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전경』, 교법 3장 24절 참조)

“망하려는 세간살이를 아낌없이 버리고 새로운 배포를 차리라. 만일 애석히 여겨 붙들고 놓지 않으면 따라서 몸마저 망하게 되리니 잘 깨달아라.” (『전경』, 교법 1장 8절 참조)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전경』, 교법 1장 21절 참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 (『전경』, 교법 1장 38절 참조)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전경』, 교법 1장 1절 참조)

32)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전경』, 교법 1장 29절 참조)

“상제께서四月 어느날 정 피산의 주막에서 상을 받고 계셨는데 전에 고부(古阜) 화란 때 알게 된 정(鄭) 순검이 나타나 돈 열냥을 청하는 것을 거절하시자 그는 무례하게 상제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돈 열냥을 빼앗아 갔도다. 이 방약무인을 탄식하시고 상제께서 그를 한탄하셨도다. 그러나 그는 그후에 다시 전주에서 서신으로 돈을 청하여 오니 상제께서 형렬로 하여금 돈 열냥을 구하여 보내시니라. 며칠 지낸 뒤에 정 순검이 고부로 돌아가던 중 정읍의 어느 다리에서 도적들에게 맞아 죽으니라. 이 소식을 전하여 들으시고 상제께서 순검이란 도적을 다스리는 자이거늘 도리어 도적질을 하여 도적에게 맞아 죽었으니 이것이 어찌 범상한 일이리오.” (『전경』, 행록 4장 16절 참조)

“(…)청석골에 살고 있는 강 팔문(姜八文)이란 자가 술과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금을 내지 않고 상제께 미루고 가니라. 팔문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부터 배가 붓기 시작하더니 사경을 헤매느니라(…) 그후 곧 그의 사망이 전하여졌도다.” (『전경』, 행록 5장 4절 참조)

“상제께서 천원(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순사상의 원(冤)과 불교사상의 고(苦)의 원인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서 조용한 방 한칸을 빌려 사람의 근접을 일체 금하고 불음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49일만에 오룡허풍(五龍嘯風)의 천지대도를 여셨다.<sup>33)</sup> 이때 주지승 박금곡이 상제께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그후 어느날 그가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자신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상제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月光大師)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sup>34)</sup>

“삼생(三生)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좇으리라.”<sup>35)</sup>

여기서 일반적으로 삼생(三生)이라 함은 전생(前生)·현생(現生)·내생(來生)을 말하지만, 현생(現生) 이전의 삼생(三生) 또는 현생과 그 이전의 전생(前生), 전전생(前前生)이라는 설(說)도 있다. 여하튼 위의 내용들은 불교의 윤회사상(輪廻思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불교와 약간 다른 면이 나타난다.

“사람에게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니라.”<sup>36)</sup>

이 구절에서 혼·백·영·선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유교적(儒教的)·도교적

---

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패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오리라.” (『전경』, 교법 3장 12절 참조)

33) 『전경』, 행록 2장 12절 참조

34) 『전경』, 행록 2장 13절

35) 『전경』, 교법 1장 4절

36) 『전경』, 교법 1장 50절

(道敎的)·민속신앙적(民俗信仰的) 색채를 띠고 있으며<sup>37)</sup>, 사대(四代)에 대한 개념은 신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대순사상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sup>38)</sup>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sup>39)</sup>

사후(死後)에 ‘천상에 오르거나 그렇지 못하고 연기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첫번째 예문], ‘수명이 길이 창성하거나 길이 멸망한다’[두번째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영혼불멸설(靈魂不滅說)을 부정하는 것으로 영혼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된다는 존재(存在)의 법칙이 아니라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이루어질 시점(時點)을 중심으로 영원히 남아 있거나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存在)와 소멸(消滅)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7) 주자(朱子)는 귀(鬼)와 신(神)을 음양의 이치에 맞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愚謂 以二氣言 則鬼者, 陰之靈也, 神者, 陽之靈也. 以一氣言 則至而 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其實, 一物而已” 이를 풀이하면, 귀(鬼)는 음(陰)의 영(靈)이요 신(神)은 양(陽)의 영(靈)이다. 그러나 이르러 퍼는 것은 신(神)이 되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은 귀(鬼)가 되는 것이니 그 실체는 하나일 따름이라 하였다(『中庸』, 제 16장 朱子注).

이와 같은 주장으로서, 이익은 중국학자 장횡거(張橫渠) 등의 음양설에 영향을 받아 “귀야자 음지령 신야자 양지령(鬼也者 陰之靈 神也者 陽之靈)”이라 하였다. 즉, 귀(鬼)는 음령(陰靈)이고 신(神)은 양령(陽靈)이라 하여 귀와 신이 동일 본체(同一本體)로 한실체의 양면임을 말하였다. 또한 귀신의 생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모든 천지에 충만한 것에 기(氣)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응집하여 물체가 되는 것은 귀(鬼)의 정영(精英)이다. 이것이 소위 역(易)에서 정(精)이 물(物)이 된다는 것이다. 전해오는 말에 처음되는 것은 백(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백은 음(陰)이다(신태웅, 『한국귀신연구』, 도서출판 로고스, 1989 27쪽 참조)

38) 『전경』, 교법 2장 22절

39) 『전경』, 예시 30절

## IV. 冤과 苦의 극복

### 1. 冤의 극복

#### (1) 公事に 의한 冤 극복

##### 1) 公사의 독창성

공사(公事)란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개혁함을 이르는 말로써, 삼계공사(三界公事), 천지공사(天地公事) 또는 개혁공사(開關公事)라고도 한다. 공사(公事)는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공사의 유형은 각기 삼계 전체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의 독창성(獨創性)을 논(論)할 때, 있어서도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특성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해원공사(解冤公事)라 하지 않고 공사(公事)의 독창성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면 상제께서 공사를 처결(處決)하시게 된 동기와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공사의 독창성에 대해서 밝히기로 하겠다.

원시의 모든 천지신명(天地神明)들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므로<sup>40)</sup> 상제께서는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開關)하여 선경(仙境)을 열고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을 건지하고자 삼계공사(三界公事)를 수행하셨다.<sup>41)</sup>

40)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집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天下)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전경』, 예시 1절 참조)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말게 되었노라.” (『전경』, 공사 1장 9절 참조)

41)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전경』, 권지 1장 11절 참조)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 (『전경』, 권지 1장 21절 참조)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 (『전경』, 예시 17절 참조)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고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sup>42)</sup>

선천세계(先天世界)에서의 상극(相克)을 상생(相生)으로, 포원(抱冤)을 해원(解冤)으로, 상도(常道)를 잃어 진멸지경에 빠진 세계를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여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본래 구원을 위한 신성한 작업으로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인류구원과 유사하지만, 이 구원은 공사에 의한 질서의 회복 또는 질서 재편성을 의미한다. 이 질서회복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삼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삼계가 모두 질서정립이 되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구원된다는 점에서 기성종교와는 전혀 다른 대순사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공사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자연히 대순사상과 불교사상(기성의 모든 종교사상을 포함하여)의 차이점도 드러날 것이다.

공사의 특성은 첫째,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사는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걸쳐 처결된다는 점이다. 둘째, 삼계는 그 영역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영향관계하에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sup>44)</sup>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전경』, 공사 1장 2절 참조)

42) 『전경』, 공사 1장 3절

43) 張根煥, 天地公事の形態的分析, 『大巡論集』, 대순진리회출판부, 1992, 66쪽 참조

44) 『전경』, 교법 1장 54절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sup>45)</sup>

첫번째 인용문의 전반부(前半部)는 인간계(人間界)에서 일어난 일이 천계(天界)에, 후반부(後半部)는 천계(天界)의 일이 인간계(人間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번째 인용문은 천계(天界)가 지계(地界)에, 다시 지계(地界)가 인간계(人間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명(神明)이 조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기(地氣)가 통일 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인류가 제각기 사상이 엇갈리고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공사의 세번째 특성은 공사를 처결하는데 있어 그 방법이 모방(模倣)이 아닌 창조(創造)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얽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46)</sup>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sup>47)</sup>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sup>48)</sup>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샐 틈 없이 도

45) 『전경』, 공사 3장 5절

46) 『전경』, 공사 1장 2절

47) 『전경』, 예시 7절

48) 『전경』, 공사 3장 6절

수를 짜 놓으시니라.”<sup>49)</sup>

위의 내용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사(公事)는 창조(創造), 개조(改造), 통일(統一)이라는 세가지 방법으로 처결되었다.<sup>50)</sup> 공사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것이며, 남의 것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상제께서 지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창조(創造)를[첫번째 예문], ‘뜯어 고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써 개조(改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개조란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올바르게 뜯어 고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창조라는 개념에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개조하는 방법 그 자체가 창조적(創造的)이라는 것이다[두번째·세번째 예문]. 또 각 처의 정기나 여러 갈래의 정수(精髓)를 통일(統一)시키거나 통합(統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세번째·네번째 예문]. 그래서 공사(公事)는 총체적으로 볼 때, 그 성격이 창조적(創造的)이라 할 수 있다.

## 2) 解冤公事

### ① 天·地界

인류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물질문명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발생하는 참혹한 재앙(災殃)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류사회는 인간이나 집단, 국가나 민족사이에 제각기 사상이 달라서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이 만연되어 있고, 천·지·인 삼계(三界)는 상통(相通)하지 못하여 상극(相克)의 원리에 지배되므로써 파멸로 치달고 있다.<sup>51)</sup> 그래서 상제께서는 인류구원을 위해서는 해원(解冤)으로써 만고의 신명(神明)을 조화하고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조정해야만 한다고 하셨다.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천지는 개벽(開闢)되고 지상선경(地上仙境)의 세계가 이룩되기 때문이

49) 『전경』, 예시 12절

50) 金正泰, 典經에 나타난 開闢思想에 관한 研究, 『大巡論集』, 대순진리회출판부, 1992, 39-40쪽 참조

51) 『전경』, 예시 8절 참조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다.<sup>52)</sup> 이렇게 볼 때, 해원(解冤)은 상극(相克)의 세계를 상생(相生)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모든 공사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곧 해원(解冤)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실천윤리적(實踐倫理的) 도덕덕목(道德德目)으로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기본사상(基本思想)이자 핵심사상(核心思想)이라 할 수 있다.

인류에게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이 세상에 쌓인 원을 풀지 못했기 때문으로 상제께서는 해원공사(解冤公事)를 행하셨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류 최초의 원(冤)은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로부터 기인한다. 이로부터 원(冤)의 역사가 시작되어 세대의 추이(推移)에 따라 원의 종자가 곳곳에 확산되어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자 상제께서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하고자 해원공사를 행하셨다.<sup>53)</sup>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면 그 가지나 잎이 말라 죽듯이, 상제께서는 원초적 원의 뿌리인 단주(丹朱)의 원을 회문산 오선위기혈에 붙여 풀어줌으로써 자연히 그 동안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되었다.<sup>54)</sup>

또한 상제께서는 지금은神明해원시대(神明解冤時代)라고 천명하시고,<sup>55)</sup> 명부(冥府)의 착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冥府公事)가 종결되면 온 세상일이 해결된다고 하셨다.<sup>56)</sup> 이것은 천계(天界)와 인간계(人間界)사이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내용이다. 상제께서 가장 먼저 처결하신 공사가 바로 이 명부공사(冥府公事)인데, 이는 삼계가 착란하는 근본적 이유가 명부의 착란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명부에서의

52) 『전경』, 공사 3장 5절 참조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53) 『전경』, 공사 3장 4절 참조

54)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전경』, 공사 3장 6절 참조)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전경』, 공사 2장 3절 참조)

55) 『전경』, 교운 1장 20절 참조

56) 『전경』, 공사 1장 5절



상극도수(相克度數)를 뜯어 고치셔서 비겁에 쌓인 신명과 인간들을 서로 상생케 하셨다.<sup>57)</sup> 이 공사를 행하므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게 되었다.<sup>58)</sup> 다시 말해서 아표신의 원한을 풀어 주신 것이다.

또 상제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의 신명(神明)인 만고 역신(逆神)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시고,<sup>59)</sup> 후사를 못두고 죽은 사람의 신명인 중천신(中天神)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黃泉神)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중천신(中天神)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셨다.<sup>60)</sup>

한편 상제께서 공사(公事)를 처결하신 조선말기의 시대적 상황은 민족적 존망의 위기와 민중생존의 절망적 체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대내적(對內的)으로는 불평등한 사회제도 즉, 양반지배의 낡은 질서와 탐관오리들의 민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서구 및 주변 열강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은 의지할 곳없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이에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고자 최 수운은 시천주(侍天主)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제도(封建制度)의 타파와 반제국주의 민중운동으로서 동학(東學)이라는 종교를 창시하여 그 교의를 전파하였다. 전명숙은 이 정신을 농민봉기와 민중운동으로 이어 갔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sup>61)</sup> 첫째, 인간의 능력은 선천적(先天的)으로 동질성에 바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후천적(後天的)인 평등성(平等性)에 입각하여 발휘된다. 둘째, 인간의 평등성으로부터 신분의 차별과 그 세습은 인정될 수 없다. 신분과 경제적 활동은 무관하다. 셋째, 인간에게 제한된 생산계급이 따로 존재하여 그들만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들만이 조세 대상자로 설정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경제적 부(富)는 부당한 권력(權力)과 권위(權威)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명숙의 주장은 그 당시로는 혁신적(革新的)인 것이었으며, 봉건사회(封建社會)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개혁사상(改革思想)이었

57) 『전경』, 예시 10절 참조

58) 『전경』, 예시 11절 참조

59) 『전경』, 교법 3장 6절 참조

60) 『전경』, 공사 1장 29절

61)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한국현대인물연구 1, 창작과 비평사, 1993, 296쪽

던 것이다. 그러나 전명숙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상제께서는 이들의 원을 풀어 주시기 위해 공사를 처결하셨다.<sup>62)</sup> 또 전명숙이 거사할 때 평등사상(平等思想)을 바탕으로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던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죽은 후 상제께서는 그를 조선명부(朝鮮冥府)로, 아울러 최수운을 일본명부(日本冥府)로 임명하셨다.<sup>63)</sup> 상제께서는 전명숙을 따라 민중운동에 동참한 동학도들의 원한도 풀어 주시기 위해서 역도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다.<sup>64)</sup> 또 최익현(崔益鉉)과 박 영효(朴泳孝)의 원한도 풀어 주셨다.<sup>65)</sup>

62) 『전경』, 공사 3장 2절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피노리(避老里) 이 화춘(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녀 장을 청 홍 황의 세 색갈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니라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때어 불사르시고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

63)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 (『전경』, 교법 1장 2절 참조)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 명숙(全明淑)으로, 청국명부(淸國冥府)를 김 일부(金一夫)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 수운(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 (『전경』, 공사 1장 7절 참조)

64) 『전경』, 공사 2장 19절 참조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道)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 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65) 『전경』, 공사 2장 22절

“상제께서 최 익현과 박 영효(朴泳孝)의 원을 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일월 최 익현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 영효(千歲千歲千千歲 萬歲萬歲萬萬歲 日月崔益鉉 千胞千胞千千胞 萬胞萬胞 胞萬萬胞 蒼生朴泳孝)」라 쓰고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는 진묵(震默)의 신명을 해원시켰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묵이 원한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이 불법(佛法)과 유도(儒道)에 통달한 것을 시기한 김 봉곡(金鳳谷)으로부터 기인한다.<sup>66)</sup> 진묵이 범서와 불법을 더 익히기 위하여 시해(尸解)로서 인도에 갔는데, 가기에 앞서 상좌로 하여금 자신의 시해가 들어 있는 방문을 돌아 올 때까지 여닫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봉곡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방문을 열고 진묵의 시해를 장작불에 화장시켰다. 진묵이 이것을 알고 찾아와 봉곡을 꾸짖었으나, 봉곡은 진묵의 말을 듣지 않았다.<sup>67)</sup> 이렇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은갓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다. 상제께서는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하셨다.<sup>68)</sup>

## ② 人間界

공사가 처결될 때의 사회적 상황은 상제께서 “유는 부유(腐儒)”<sup>69)</sup>라고 하셨듯이, 유교중심(儒敎中心)의 사상에서 유래된 첨예화된 계층의 차별화(差別化)로 말미암아 그 병폐(病幣)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교는 인륜적(人倫的) 질서(秩序)를 중시한 결과 양반, 중서, 상인, 천인, 노비의 계

66) 『전경』, 공사 3장 14절 참조

“상제께서 전주 봉서산(全州 鳳棲山) 밑에 계실 때 종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시니라. 김 봉곡(金鳳谷)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震默)은 하루 봉곡으로부터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 가면서도 봉곡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寺院洞)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곡은 과연 그 책자를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에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儒道)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 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후에 진묵이 봉곡을 찾아가니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묵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곡이 노발 대발하는도다. 진묵은 내가 외울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달아 한 편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 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곡은 더욱 더 시기하였도다.”

67) 『전경』, 공사 3장 15절 참조

68) 『전경』, 권지 2장 37절 참조

69) 『전경』, 교운 1장 6절

급적(階級的) 구별, 적서(嫡庶)의 구별로 관리의 등용 제한, 직업의 선택이나 혼인, 거주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았고 천인 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sup>70)</sup> 특히 유교도덕(儒敎道德)은 비천자(卑賤者)가 존귀자(尊貴者)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는 귀천(貴賤)과 존비(尊卑)의 관계에서 생각되고, 이에 관한 질서가 인간관계의 질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 질서는 존귀자, 권력자의 지위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당연시 하는 것으로 효(孝)·충(忠) 곧 아버지와 임금이 자식과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었다.<sup>71)</sup> 이를 악용하여 사대부(士大夫)와 관원(官員)들은 민중을 경제적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 왔으며, 이로 인해 빈부(貧富)의 차(差)는 더욱 심화되어 백성들은 자연히 관료나 가진자를 원한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제께서는 “지금은 해원시대”<sup>72)</sup>라고 선언하시고, 유교(儒敎)의 폐습에 따른 병폐를 없애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좋은 시대가 오리라.”<sup>73)</sup>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sup>74)</sup>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sup>75)</sup>

70) 문순태, 같은 글, 153쪽

71)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0, 134쪽

72) 『전경』, 교법 1장 9절

73) 『전경』, 교법 1장 9절

74) 『전경』, 교법 1장 10절

75) 『전경』, 교운 1장 32절

유교(儒敎)는 남성위주(男性爲主)의 경제체제(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남성중심의 윤리체계(倫理體系)를 확립시켜 부계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갈등(葛藤)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적(序列的) 인간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나 대(代)를 이어 주는 후손을 위한 생산적 도구에 불과했다. 남성본위(男性本位)의 이혼, 과부의 재가금지(再嫁禁止) 등의 남존여비(男尊女卑)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원한을 맺게 했다. 이에 상제께서는 남녀평등(男女平等)에 입각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들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 주셨다.<sup>76)</sup>

## (2) 人間次元의 冤 극복

인간차원에서 원(冤)을 극복한다는 것은 인간상호간(人間相互間)에 맺힌 원을 풀고 상생을 위해 실천적(實踐的)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실천방법으로 신조(信條), 훈회(訓誨), 수칙(守則)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훈회(訓誨)를 중심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훈회는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 셋째, 척을 짓지 말라. 넷째, 은혜를

76)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전경』, 공사 1장 32절 참조)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 (『전경』, 공사 2장 17절 참조)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忠孝烈 國之大綱然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 (『전경』, 교법 1장 46절 참조)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전경』, 교법 1장 68절 참조)

“사람을 쓸 때는 남녀 노약을 구별하지 않으니라.” (『교법』 2장 40절 참조)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전경』, 교법 2장 57절 참조)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전경』, 권지 1장 17절 참조)

저버리지 말라. 다섯째, 남을 잘되게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남에게 척(慼)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세부적인 실천방법으로서 정심(正心), 언덕(言德), 은혜(恩惠)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척(慼)이란 무엇인가? 척(慼)이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거나 남의 호의(好意)를 저버리는 것은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이다. 척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溫恭), 양순(良順), 겸손(謙遜), 사양(辭讓)의 덕(德)으로 대해야 한다.<sup>77)</sup> 속담에 ‘무척 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의미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怨恨)을 맺게 하면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고, 남을 미워하면 설사 이를 상대방이 모른다 하더라도神明(神明)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게 된다.<sup>78)</sup>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것이다. 척을 맺고 푸는 주체도 남이 아닌 나 자신이다. 내가 먼저 척을 풀면 상대방의 척은 스스로 풀리고, 양자(兩者)의 척이 풀려서 해원(解冤)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相生)이 된다.<sup>79)</sup> 즉, 모든 것이 나로부터 원인(原因)이 되기 때문에 설령 상호간에 불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척(慼)을 풀고 남을 포용(包容)하면 남도 스스로 척(慼)을 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상을 『전경』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천원(川原) 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나 내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내 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77) 『대순진리회 요람』, 19쪽 참조

78) 『전경』, 교법 2장 44절 참조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神明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79) 『대순지침』, 27쪽 참조

“해원(解冤)은 척(慼)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므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의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오리라.」<sup>80)</sup>

“또 하루는 경석에게 가라사대 「갑오년 겨울에 너의 집에서 삼인이 동맹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렇다고 대답하니라. 상제께서 「그 일을 어느 모 해자가 밀고하므로써 너의 부친이 해를 입었느냐」고 하시니 경석이 낙루하며 「그렇소이다」고 대답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의 형제가 음해자에게 복수코자 함은 사람의 정으로는 당연한 일이나 너의 부친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여 나에게 고하니 너희들은 마음을 돌리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좃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sup>81)</sup>

악(惡)을 악(惡)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기 때문에,<sup>82)</sup> 악(惡)을 선(善)으로 갚지 않으면 또 다른 악(惡)을 낳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원수(怨讐)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恩人)과 같이 사랑하라는 실천적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sup>83)</sup>

앞서 언급한 대로 훈회 중 남에게 척(慝)을 짓지 않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세부적인 실천방법으로서 정심(正心)과 언덕(言德), 은혜(恩惠)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언행(言行)의 발로(發露)이고 언행은 마음의 표현(表現)이다. 마음은 양심(良心)과 사심(私心), 선(善)과 악(惡)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 양심(良心)이고 그 반대의 마음이 사심(私心)이다. 남에게 해(害)를 끼치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은 선(善)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악(惡)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자신을 속이는 것은 자기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기(自欺自棄) 때문에 이것 또한 올바른 것이 못된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속이는 마음이 선행(先行)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sup>84)</sup>

80) 『전경』, 교법 3장 12절

81) 『전경』, 교법 3장 15절

82) 『전경』, 교법 1장 34절 참조

83) 『전경』, 교법 1장 56절 참조

84) 『대순지침』, 42쪽 참조

마음을 속이면 마음이 참되지 못하므로 뜻이 참되지 못하게 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되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한다(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sup>85)</sup> 이와는 반대로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조화가 일어난다.<sup>86)</sup> 먼저 나 자신이 사심(私心)을 버리고 양심(良心)을 가지면 남의 마음도 참되게 할 수 있다.<sup>87)</sup> 이것이 척(慼)을 푸는 것이고 상생(相生)의 길인 것이다.

두번째는 언덕(言德)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인데, 말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상(思想)이나 감정(感情), 의사(意思) 등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매개체(媒介體)이다. 말에는 덕(德)이 있는 말과 독(毒)이 있는 말이 있다. 덕(德)이 있는 말이란 남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을 의미하며, 독(毒)이 있는 말이란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절망(絶望)에 빠뜨리기도 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말을 의미한다. 언어폭력(言語暴力)이란 말이 있듯이 말은 경우에 따라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치명적(致命的)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지니라 하셨도다.”<sup>88)</sup>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이다.<sup>89)</sup> 말이란 마음의 대변자(代辯者)로서 인간의 내면(內面)과 외면(外面)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설령 진실이 왜곡(歪曲)되어 다

85) 『대순지침』, 76쪽 참조

86) 『대순지침』, 43쪽 참조

87) 『대순지침』, 70쪽 참조

88) 『전경』, 교법 2장 50절

89) 『전경』, 교법 1장 11절 참조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口舌數)에 오르내리고, 또 남이 나에게 트집을 잡더라도 함께 맞대응하여 남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포용력(包容力)을 발휘하여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덕(德)이 되어 복(福)을 받게 되는 것이다.<sup>90)</sup>

세번째는 은혜(恩惠)에 대한 문제이다. 은혜(恩惠)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혜택(惠澤)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背反)함이니, 은혜(恩惠)를 받거던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天地)의 은혜이니 성(誠)·경(敬)·신(信)으로써 천지(天地) 보은(報恩)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國家) 사회(社會)의 은혜(恩惠)이니 헌신(獻身) 봉사(奉仕)의 충성(忠誠)으로써 사회 발전(社會發展)과 공동복리(共同福利)를 도모(圖謀)하며 국민(國民)의 도리(道理)를 다하고, 출생(出生)과 양육(養育)은 부모(父母)의 은혜(恩惠)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孝道)를 다하고, 교도 육성(教導育成)은 스승의 은혜(恩惠)이니 봉교(奉教) 포덕(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고, 생활(生活)과 녹작(祿爵)은 직업(職業)의 은혜(恩惠)이니 충실(忠實)과 근면(勤勉)으로써 직분(職分)을 다하라는 것이다.<sup>91)</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대순사상에서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과 언덕(言德)을 잘 가질 것, 그리고 은혜(恩惠)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회(訓誨)의 5가지 사항은 해원상생을 위한 실천방법(實踐方法)이 된다. 이와 같이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이자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根本理念)인 것이다.<sup>92)</sup>

90) “식불언(食不言)이라 하였으니 먹는 것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寢不言)이라 하였으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전경』, 교법 1장 60절 참조)

“남을 비방하는데 대해서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인데 제 몸을 생각지 못하고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리오.” (『전경』, 교법 1장 20절 참조)

“나를 모르는 자가 항상 나를 헐뜯나니 내가 만일 같이 헐뜯어서 그것을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고 용렬한 자가 되니라.” (『전경』, 교법 1장 27절 참조)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도 불다가 그 치나니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 동정에 때가 있나니 견힐 때에는 흔적도 없이 견히나니라.” (『전경』, 교법 1장 28절 참조)

91) 『대순진리회 요람』, 20쪽 참조

92) 『대순진리회 요람』, 20쪽 참조

## 2. 고통의 극복

생(生)의 의지(意志)의 부정 즉, 모든 욕망(慾望)을 버리는 것만이 이러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다. 이것이 사성제(四聖諦) 중 세번째 진리인 멸(滅)이다. 석가는 이렇게 전한다. “이것이 괴로움인 줄 알고 애욕의 집착을 끊으면 눈을 얻었다고 하리니, 이 생을 마치고는 뒤에 다시 괴로움이 없게 된다. 집착이라 함은 애욕을 따라 생긴다는 것이니, 괴로움과 집착을 모두 없애고 그 길을 따라 진리를 행하여 눈을 얻으면 이 생을 마친 뒤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미 진리를 보아 도의 눈을 얻은 이에게는 다시 나고 죽음이 없다.”<sup>93)</sup> 이렇게 집착(執着)의 단절을 통해서만이 다시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윤회(輪廻)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영생(永生)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涅槃)이라 한다.

불교의 최상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실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 방법이 네번째 진리인 도(道)이다. 이는 멸(滅)의 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의미한다.

석가는 이렇게 전한다. “그리고 도를 얻으려면 여덟가지 행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래의 가르침을 듣고, 둘째는 애욕을 버려 갈등을 없애며, 세째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고, 네째는 속이고 아첨하며 나쁜 말로 꾸짖는 일을 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질투하고 욕심내어 남들이 믿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여섯째는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고 고(苦)이고 공(空)이고 무아(無我)임을 생각하며, 일곱째는 몸의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여덟째는 몸에 탐착하지 않고 마침내는 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는 것이다.”<sup>94)</sup> 석가는 괴로움을 없애고 해탈할 수 있는 길로서 팔정도(八正道)<sup>95)</sup>를 말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관능적 욕

93) 『불교성전』, 78쪽

94) 『불교성전』, 78쪽

95) 팔정도(八正道)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이다. 정견(正見): 모든 현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 정사(正思): 올바른 가치관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 정어(正語):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正業): 바른 행위를 하는 것, 정명(正命): 바른 생활을 하는 것, 정정진(正精進):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정념(正念): 바른 생각을 갖는 것, 정정(正定):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을 일컫는다.

구의 추구나 고행에만 전념하는 것은 모두 극단적인 행위로서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中道)를 취해야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팔정도를 설법했던 것이다.

### 3. 冤과 苦의 극복방법 비교

대순사상(大巡思想)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의 해원(解冤)에 두고 있는데 비해, 불교사상(佛敎思想)은 인생고를 극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원(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초인적인 방법으로서 상제에 의한 해원공사(解冤公事)이고 또 하나는 인간 자신의 실천수행 방법이다. 불교사상에서는 고(苦)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前者)의 방법은 없고 후자(後者)의 방법만이 있을 따름이다.

대순사상에서 원(冤)을 극복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으로서 해원공사(解冤公事)가 있는데, 이것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를 바탕으로 상극(相克)을 상생(相生)으로 바꾸는 신성한 작업이다. 특히 대순사상에서는 인류 최초의 원(冤)이 단주(丹朱)의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원(冤)만 풀면 수 천 년 쌓인 원(冤)의 마디와 고(苦)가 풀린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간이 수 천 년 전에 생긴 원을 푼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삼계(三界)를 주재(主宰)하시는 상제의 권능(權能)으로만 가능하다. 상제께서 삼계에 쌓인 원을 풀어 주시기 위해 처결(處決)하신 공사가 해원공사(解冤公事)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인간 자신의 실천수행에 의한 방법으로서 신조(信條), 훈회(訓誨), 수칙(守則) 등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훈회(訓誨)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훈회(訓誨)의 5가지 사항을 함축(含蓄)하여 표현하자면, 항상 이기심(利己心)을 버리고 이타심(利他心)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만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이고 언덕(言德)을 잘 가질 것이며 은혜(恩惠)를 저버리는 일이 없이 항상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위한 실천인 것이다. 불교사상(佛敎思想)은 고(苦)를 없애고 해탈(解脫)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순사상(大巡思想)의 훈회(訓誨)와 마찬가지로 이기심(利己心)을 버리고 이타심(利他心)을 가지라는 것으로 함축될 수 있다. 불교용어로는 자비(慈悲)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론

우주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건 해로운 존재건, 가시적(可視的)인 존재건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존재건, 무수한 존재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共存)하고 공유(共有)하는 삶의 터전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주안에 있는 모든 존재 즉,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 종교와 사상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볼 때, 선천세계(先天世界)의 한 종교인 불교가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濟度)하였지만, 완전한 선경(仙境)의 세계를 이룩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탈(解脫)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개념으로서 해탈자(解脫者)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곳은 천계(天界 또는 神界)인데, 천계는 인간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계가 완전하지 않고서는 신계 또한 완전한 선경의 세계를 이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를테면 해탈자가 극락세계(極樂世界)에 갔더라도 인간계가 해원(解冤)이 되지 않고서는 해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적인 관계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세계만 해원(解冤)이 되었다고 해서 선경(仙境)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삼계 전체가 해원(解冤)이 되어야만 진정한 선경의 세계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교의 해탈은 우주구성원의 일부인 인간 자체만의 구제이지 우주만물 전체의 구제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불교(기존의 모든 종교)가 인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천(天)과 지(地)를 배제하고 인간중심적인 구제인 반면에, 대순진리회는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를 포함한 인간중심

적 구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을 통한 지상선경(地上仙境)의 세계이다. 불교(佛敎)에서 의미하는 극락세계는 인간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세계로서 대순진리회에서 목표로 하는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의 세계는 사후(死後)가 아닌 현생(現生)에서 실현될 극락세계인 것이다.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 『불교성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성전 편찬회, 서울 1978
-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교무부, 1992
- 『大巡思想論叢』 제 1집, 大巡思想學術院, 포천 1996
-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3
- 『中央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 第 34輯,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1
- 『中央大學校 人文科學 論文集』 第 35輯,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2
- 서광선 엮음, 恨의 이야기, 청노루, 1988
- 신태웅, 『한국귀신연구』, 도서출판 로고스, 1989
-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한국현대인물연구 1, 창작과 비평사, 1993
- 尹泰林, 韓國人, 玄岩社, 1970
- 李御寧,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중앙일보 1982. 9. 23일자)
- 이소노가미젠이찌로(박희준 옮김), 윤희와 전생, 고려원, 1989